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팔볼출 아빠의 자식사랑

자식사랑 팔볼출에 끼더라도 자식 사랑 좀 해야지!
중3인 딸자식은 석차 430/480, 수학20, 과학25이지만...

보도블럭 틈새 개미집에 먹던 과자를 부스러 주고 가다
부스러기가 너무 커 구멍에 걸릴까봐 다시 돌아와 잘게 부셔 주고 가는 아이

공원 나무사이 거미줄에 먹이가 하나도 없으면
번데기 사다 잘게 찢아 거미줄에 걸쳐놓고 가는 아이

모기, 파리, 바퀴벌레 잡는 제 엄마 쫓아다니며
어서 도망가라고 눈을 흘리는 내 소중한 딸아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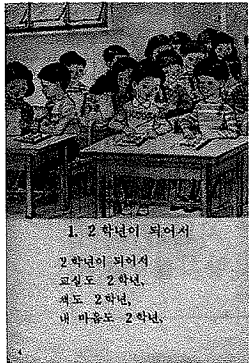
초6인 아들놈은 무시랄 시범학교라고 성적표조차 안 가져와
석차도 모르지만 특하면 선생님께 엄마 불러 가보면
저보다 막 하나 큰아이 팔 부러뜨리고 이빨 부러뜨리고
언젠가는 아빠 한달 월급 합의금으로 다 날리고도
살찐 목에 진주 두른 목소리 큰 여자에게 먹살 잡히며
애들 교육 잘 시키라고 망신당하고 온 제 엄마에게

죽도록 맞고도 불기에 피나도록 맞고도 잘못했다고 말 한 마디 없이
묵묵히 맞는 그 아이 손을 잡고 나는 놀이터에 갔었다.

그네 둘에 부자가 나뉘 타고 한참이나 말없다가 아들녀석 울컥 울면서 하는 말
'저희 반에 진용이란 애가 있는데요 이혼하고 엄마랑만 사는데요
올 초에 엄마가 집을 나가 동생하고만 사는데요

말을 더듬고 삼도 못하고 웃도 찢어졌지만 참 착한 아이거든요!
근데 반 애들이 그 애만 놀리고 때리고 빼앗고 해요
아빠 전 진용이를 지켜주고 싶어요
아빠가 그 동안 주신 용돈도 거의 진용이 빵하고 우유 사주는데 썼어요!
진용이를 괴롭히는 아이들과 늘 싸웠어요
싸울땐 아무 생각도 안났어요. 아빠가 5살때부터 합기도를 배우게 해 주신 걸
감사하게 생각했어요. 하지만 아빠 죄송해요.

내 아이들아!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!
하다가하다가 정히 이 세상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아빠랑 태백화전으로 가자
그 곳에서 우리 옥수수랑 감자랑 심고 좋은 책 읽고 좋은 음악 듣고 풀벌레랑 같이
밤이면 강을 이룰 별 품에서 살자꾸나,
사랑하는 내 아이들아!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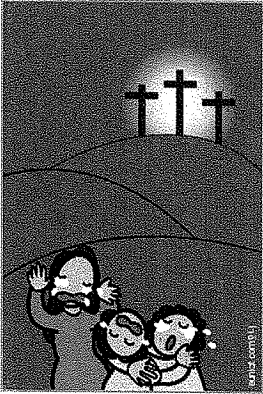


1, 2학년이 되어서
2학년이 되어서
교실도 2학년,
책도 2학년,
내 마음도 2학년.

◀그뎨 그랬지▶ 계명부르기
“♪도미솔 도미솔 라라라솔 파파파미미미레레레도♪”
음악시간이면 풍금을 치시던 선생님을 따라 계명부터 부르
기 시작했습니다. 덕분에 지금도 가사는 생각이 안나도 계
명은 흥얼거리는 노래가 몇 개 됩니다. 사실 절대음감을 모
르면서 계명을 부르는게 곡을 익히는데 별 도움은 안되었
는데도 선생님께서는 계명부터 부르게하셨습니다. 계명부르기
에 압권인 노래는 워니워니해도 “♪솔솔 미파솔 라라솔 솔
도미레도레..” 인 듯 합니다. 단아한 쪽지머리의 어머니와
사랑방 손님사이에 어울리던 풍금, 그 풍금따라 부르던 계
명부르기도 이제는 풍금이 있던자리에만 남아 있습니다

| | | |
|---|--|--|
|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| '2004년 교회생활'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 |
| 제6권 11호 | 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 | 2004년 3월 14일 |
| ☎520-9464, 369-5077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 | | |

할 수 없는 것



다른 사람의 손해를 수단으로 해서
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
십자가를 외면함으로써 면류관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
친구를 빼앗기는 경솔한 농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
결국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
웃음을 웃을 수는 없습니다
내일 굶게 만드는 잔치를 오늘 즐길 수는 없습니다
마지막 비극으로 끝나는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

불장난이나 뱀에게 물릴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
죄가 어떤 종류의 진정한 기쁨을

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
비웃는 사람의 냉소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수만은 없습니다
지혜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

미움에 대해서 똑같은 미움으로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
불을 붙이거나 거기에 부채질 할 수는 없습니다
세상의 덧없는 속삭임에 영혼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
죽음과 생명을 어리석은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

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당신으로부터 멀어져
선한 일에는 눈이 멀었나이다
오, 주님! 우리에게 빛을 주시사
우리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하소서

◀남편 기 살리는 말▶
“역시 당신은 수준 있네요.”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“언제는 잘 했나요?”

◀아내 기 살리는 말▶
“당신은 처녀 때나 지금이나
한결 같애”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“또 시작이야?”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
| 영광송 Gloria | Calvary | 다 같이 |
|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| | |
| 용서의 선언 Proclaim |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| 인도자 |
| *찬송 Hymn | 47장 | 다 같이 |
| 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| 40 (이사야 58) | |
| *신앙고백 Apostle's Creed | 사도신경 | |
| 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 | | |
|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| | 주일학교 |
| 찬송 Hymn | 338장 | 다 같이 |
| 기도 Prayer | | 김영길 안수집사 |
|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| 요한계시록 3:14-22 | 인도자 |
| 성가대 찬양 Choir | | 나무십자가성가대 |
| 설교 Sermon | 부자교회의 초라함 라오디게아교회 | 김성국 목사 |
| 특송 Song | '물가로 나오라' | |
| 헌금기도 Offering Pray | | 인도자 |
| 응답송 Response Song | '이 믿음 더욱 굳세라' (1절다같이) | 다 같이 |
| 축도 Benediction | | 김성국 목사 |

(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3월의 예배위원◆

| 일자 | 기도 | 헌금위원 | 설거지 |
|----|-----|------|-----|
| 7 | 김순자 | 박상옥 | 5구역 |
| 14 | 김영길 | 박 실 | 6구역 |
| 21 | 김종건 | 박재양 | 청년부 |
| 28 | 노은숙 | 박정자 | 7구역 |

' 2004년 교회표어
"바보같은 교회" (창6:22)
*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. 그래도 살아본다
*누구나 평등하다.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

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
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
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예배: 저녁 7:30 | 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7시

- 교우소식
<한국방문> 김경일 집사, 이선혜 성도
- "부활절 봉헌 영어성경 쓰기" : 필사용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
* "The Passion of the Christ", '열정' 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'Passion', 성경에서는 "수난, 고난" 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.
- 믿음의 어머니기도회: <일시> 15일(월) 오후1시, 교회
* 자신의 가정과 교우들을 형편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'믿음의 어머니' 들, 기도부탁하십시오 (담당: 정희자 권사)
- Day Light Saving Time 해제 <일시> 21일(주일) 새벽
* 이번주 토요일밤엔 미리 1시간 뒤로 돌려놓으세요 (밤9시-->밤8시). 깜박하면 1시간 일찍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.
- 수해당한 KIWI를 위한 "수재헌금" : 안내석에 수재헌금함이 있습니다
* 한국전쟁때 목숨으로 우리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, 큰병들어 입원해보면, 자녀들이 College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면 작은 사랑이라 오히려 부끄럽습니다
<대상> Wherico Church (Wellington 근처 Bulls: 근처를 흐르는 강이 넘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김)
- 다음주일: 제1남선교회의 "은 십자가 성가대" 찬양주일입니다
- 학생부를 위한 성경책 Donation: 가정에 사용치 않는 성경책을 갖고계시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유학생을 위해 Donation을 바랍니다 (문의: 김미애 집사)
- "자녀를 위한 2주 특별새벽기도회" (예고) <일시> 3월 29일-4월 10일(토)
- "성탄절축하의밤" Video Tape(\$10): 지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(문의: 전병주 목사)
- 수요예배 <수요일 저녁7:30> '잘 믿겠다는 순수함', 그것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.
- 예배 후 임시당회를 갖습니다

◀착한 시인들▶ 우리집 김치 담근 날 김용택

민해야 이 김치 큰집 갖다주어라
민해야 이 김치 텃집 갖다주어라
민해야 이 김치 당숙모네 갖다주어라
민해야 이 김치 옆집 갖다주고 오면서
할머니 진지 같이 드시게 오시래라
민해 이마에는 땀 솟고
담근 김치 찌꺼 남았네

아내가 양배추 김치를 담갔습니다. 김장 김치도 다 동나고 배추가 안 나오던 계절이면 양배추 김치를 먹던 군대시절, 그 이후로도 아삭아삭한 맛에 좋아하게 된 김치입니다.
김치 담그는 법이 각기 달라 서로 제 맛을 품고 있던 집집마다의 김치, 서로 나누어 먹으면 그 맥의 입맛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.
이제는 김치조차 사 먹는 시대가 되어 김칫독에서 인심나던 그 향기를 잃어버린 시절입니다